

“소리길 47년... ‘적벽가’ 보유자 자긍심”

2021 새로운 출발

〈7〉 윤진철 명창

그저 음악과 노래부르는 것을 좋아해 판소리를 시작한 11세 소년이 47년이 지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됐다.

광주 MBC ‘얼씨구 학당’과 ‘우리가락 우리문화’ 진행자로도 잘 알려진 윤진철(57) 명창이 지난해 12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적벽가)’ 보유자로 지정되면서 그 실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적벽가’는 소설 ‘삼국지연의’의 ‘적벽대전’을 소재로 만든 작품으로 남성적인 소리와 여성적인 소리가 합쳐져 있어 호방하지만 섬세한 소리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 한달간 화순에서 제자들하고 소리 연습을 하면서 지냈다는 윤 명창은 “전통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가장 최고의 위치인 국가무형문화재가 돼 말할 수 없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아까가 무겁다”며 “햇수로 47년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수상과 명예로운 표창들을 받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전통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국가무형문화재는 가장 갈망하는 꿈이다. 윤 명창 또한 그랬다. 하지만 그는 “문화재가 되는 것은 그저 꿈이었다”며 “문화재에 대한 욕심보다는 소리가 좋아서 천직이라 생각하며 후회 없는 소리길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윤 명창은 ‘소리의 고장’ 목포 출신답게 어려서부터 노래부르는 걸 누구보다 좋아했다. 초등학교 시절 동네 국악원에서 들려오는 국악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던 소년은 김흥남 선생을 만나 판소리에 입문했고, 이후 한결같이 소리꾼의 삶을 살았다.

“국악을 처음 접했던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을 거예요. 동네에 국악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들려오는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종종 건물 아래에 한참 서서 들곤 했는데, 어느날 선생님 손에 이끌려 국악의 길로 들어서게 됐죠.”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KBS 창구 프로그램에 소년 역할로 캐스팅됐고 당시 도장과 작장을 맡은 정권진 명창과 첫 인연을 맺었다. 이후 고등학교 3학년 말 병성기로 고난을 겪었지만 노력 끝에 한양대 국악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후 전남대에서 전임강사로 있던 정권진 명창과 스승과 제자로 다시 만났다. 목포와 광주를 오가며 소리 공부를 하던 중 1985년 전남대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다. 방학이면 스승의 집에서 먹고 자며 스승의 넓고 깊은 소리세계를 전수받던 중 처음으로 ‘적벽가’를 접했다.

“스승님께서 소리 공부를 가르치실 때 처음부

터 하나하나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르치고 싶은 부분을 가르치며 소리에 대한 어찌, 소리의 길에 대한 이야기 등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소리꾼으로서 성장하는데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죠. 1986년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3년여의 공부는 제 소리인생의 길라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승이 세상을 떠나고 ‘적벽가’를 더 깊이 있게 다듬으며 공부하던 중 국립국악원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나가 ‘적벽가’로 대상을 수상하면서 군 면제 혜택까지 받았다. 2003년 광주문화예술

지난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스승 정권진 명창에 소리 배워 대사습 대통령상...창극단 감독 광주 MBC ‘얼씨구 학당’ 진행 소리 공연, 전수교육관 건립 꿈

회관에서 ‘적벽가’ 왕창 발표회’를 선보였고, 정권진 명창의 ‘적벽가’를 이어받고 있음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는 “완창 발표 및 다양한 연주회 그리고 앨범제작(2010년)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며 “자칫 끊길뻔한 박유전-정재근-정승민-정권진의 보성소리 ‘적벽가’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 자긍심을 갖고, 꾸준히 ‘적벽가’의 부흥과 전승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힘든 시절도 있었다. 정권진 명창이 세상을 떠났을 때 윤 명창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길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했고 독공이라는 혼자만의 연습과정이 처절했다”며 “스승이 앞에 계시는 것 같이 상상하며 연습을 했고, 스승의 음원 자료를 분석하면서 수정작업을 하는 등 오랜시간 홀로 싸웠다”고 말했다.

그로서인지 윤 명창은 다른 소리보다 스승의 대표작인 소린보 보성소리 ‘적벽가’에 애착이 간다. “모든 소리가 다 귀하지만 ‘적벽가’는 다섯바탕 중 가장 어려운 작품이기 때문에 스승께서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연습하셨던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방하면서도 진중하고 다양한 음악적 표현이 가능한 매력적인 작품이죠.”

그는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욕심을 버리고 내적으로 더 많은 힘을 들일 계획이다. 우선 전수자를 지정해서 문화재 본래의 목적인 전승활동을 충실히 할 생각이며, 광주와 전남에서 소리로 관객들



국가무형문화재 ‘적벽가’ 보유자 윤진철 명창.

과 만날 예정이다. “먼저, 무대를 마련해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께 소리로 인사드릴 계획입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판소리 네바탕을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 4차례에 걸쳐 선보일 예정입니다. 일 년에 한 번씩 선보일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도 열심히 준비해서 이 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할 생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전수교육관을 건립해서 교육과 공연, 기획 및 아카이브 구축에 힘쓸 예정입니다.”

한편, 윤 명창은 제24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부문 대통령상, 제3회 서암전통문화대상, KBS 국악대상 등을 수상했다. 2011년에는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을 맡아 창작 판소리 ‘동기호대전’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병문 작 ‘등꽃’

자연 ‘바람’...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람’

드영미술관, 28일까지 소장작품전

“자연 속에서 위로를 찾다.”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은 2021 소장작품전을 오는 28일까지 개최한다.

‘바람, 바람, 바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작가 9명의 평면 회화와 판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 주제는 자연 속에서 만나는 바람과 함께,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바람’의 뜻도 함께 담았다. 무엇보다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19로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전한다는 소박한

의미를 담아 전시작을 선정했다. 전시에서 만나는 작품은 상쾌한 느낌의 등나무꽃, 화사한 장미꽃을 비롯해 소박한 눈이 쌓인 정겨운 골목길 등 따뜻하고 친숙한 풍경들이다. 코로나로 인해 새삼스레 소중함을 알게 된 자연의 가치와 일상의 소중함이 담긴 작품들이다. 전시에는 서양화가 고(故) 진양욱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구만채·김동영·노여운·박화자·송대성·전병문·하철경·홍지우 등 중견, 청년작가가 참여했다.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드영미술관은 해마다 청년작가 기획전 등 다채로운 전시를 열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추상 드로잉 12점 ‘무한에 대한 상상’

송유미 전, 6일까지 산수미술관

송유미 작가 개인전이 오는 6일까지 산수미술관(광주시 동구 산수동 26-4)에서 열린다.

‘무한에 대한 상상’ 연작을 선보이는 이번 개인전에서 송 작가는 오랜 시간 꾸준히 탐구해온 추상 드로잉 작품 12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작은 가는 선의 반복적인 드로잉 작업을 통해 화면에 끝없는 깊이를 구현한 작품으로 관람객의 무한한 상상을 자극한다. 화면은 때론 우주의 무한 공간처럼 보이기도 하고, 미세 입자가 무리지어 떠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매일 한 작품을 완성할 정도의 많은 작업량을 소화하는 송 작가는 캔버스 위에 드로잉 작업을 수없이 반복해 화면을 매꿔나가다 어느 순간 드로잉 작업을 멈춘다. 수년간의 서예와 검술로 익힌 호흡과 리듬으로 수십 겹의 레이어를 만들어내고 화면에 에너지가 충만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드로잉을 멈춤으로써 작업을 완성한다는 설명이다. 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곡선들의 수많은 반복과 선들이 주는 울동함은 화면에 강한 에너지를 부여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무한에 대한 상상’

송 작가는 작가 노트에서 “화면 위에 무수히 반복되는 선을 그으며 무한을 상상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이라고 말한다.

송 작가는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를 수료했으며 9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송가인과 함께하는 ‘국립남도국악원’

SNS 홍보영상 제작, 유튜브 채널 공개...8~26일 기념 이벤트도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명현·이하 국악원)은 1일 가수 송가인과 함께 국립남도국악원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SNS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국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SNS 홍보영상은 일반인들에게 국립남도국악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됐으며, 공연장과 연습관, 속박동 등 시설 전반과 운영사업, 청소년 직업 체험에 유익한 국악원 사람들 등 총 3편의 영상으로 구성됐다. 짧은 세대를 아우르는 창의적인 콘셉트에 진도 출신 송가인이 출연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국악원은 국악연수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외국어도 선보일 예정이다. 영어·일본어·중국어는 물론, 국악 연수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제공하기 위해 러시아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 등 총 7개의 외국어가 자막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홍보영상 제작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국악원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영상 3편을 시청한 후 ‘좋아요’와 구독을 하고 국악원 누리집 국민마당 이벤트 참여란에 후기를 작성하면 선정을 통해 에어팟 프로 등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61-540-403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송가인

광주시민인문학, 28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강좌

광주시민인문학 88기 강좌가 오는 28일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강좌는 화·목·금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글쓰기, 독서, 철학 등 다양한 인문학을 매개로 진행한다.

화요일(격주) 문예비평 시간은 명혜영 교수가 ‘인문적 글쓰기로 ‘나’를 만나다’를 주제로 강의한다. 목요일은 신우진 이사장이 ‘목욕회-십인십책’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눈다. 금요일은 인문사회 시간으로 명혜영 교수와 함께 ‘베르그송 ‘시간과 자유-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을

강독할 예정이다. 토요일 오후 2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영화인문학은 전남대 카페 노블에서 ‘영화로 읽는 삶, 여성, 가족, 개인’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예정돼 있다. 전 강좌 무료이며 조합원 가입과 후원 희망자는 전화(010-4624-1201, 010-9949-8557)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전남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